

외국인 직접투자 양호

2009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2,715백만불) 대비 38.2% 감소한 1,677백만불 기록했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와 경쟁국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국을 보면, ('09년 1-2월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 Δ 67.9%, 브라질 Δ 31.8%, 중국 Δ 26.2%이고, ('08년 실적, 전년대비) 싱가포르 Δ 57.2%, 영국 Δ 51.1%, 이탈리아 Δ 94.3%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05.1/4	'06.1/4	'07.1/4	'08.1/4	'09.1/4
신고건수 (증감률)	856 (31.3)	861 (0.6)	810 (Δ 5.9)	865 (6.8)	788 (Δ 8.9)
신고액 (증감률)	3,128 (2.6)	2,209 (Δ 29.4)	1,599 (Δ 27.6)	2,715 (69.8)	1,677 (Δ 38.2)

제조업 투자(913백만불)가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하고, Greenfield형 투자(1,490백만불)의 비중이 증가(64.0% \rightarrow 88.0%)하여 고용창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제조업 중 녹색성장과 관련된 전기·전자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일본의 투자가 급증

지역별로는 부품소재 관련 투자가 급증한 일본의

투자가 162.8%증가한 661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21.0% 감소한 358백만불, EU는 65.2% 감소한 535백만불 기록했다. 지경부는 글로벌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금년 목표(125억불) 달성을 위해 타겟 프로젝트별 고위급 IR 개최, 엔고 등 활용, 일본 부품소재 기업유치 등 총체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2,715백만불) 대비 38.2% 감소한 1,677백만불을 기록했고,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865건) 대비 8.9% 감소한 788건을 기록했다. '08년도 도착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8,192백만불로 '07년도 7,780백만불 대비 5.3% 증가했다.

제조업 투자는 증가, 서비스업 투자는 감소

투자 분야와 관련하여 우선,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913백만불, 서비스업 투자는 61.1% 감소한 757백만불 기록했다. 형태별로는 대형 M&A 투자 건수의 감소로 M&A형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80.8% 감소한 188백만불을 기록한 반면, Greenfield형 투자는 14.0% 감소한 1,490백만불 기록했다. M&A형 투자란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회사와 합

〈산업별-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불, %)

	2008. 1/4			2009. 1/4		
	M&A형	Greenfield형	계	M&A형	Greenfield형	계
제조업	355	370	725	95(Δ73.2)	818(121.1)	913(26.0)
서비스업	596	1,337	1,933	92(Δ84.6)	665(Δ50.3)	757(Δ61.1)
기타	27	31	58	1(Δ96.3)	7(Δ77.4)	7(Δ87.9)
합계	977	1,738	2,715	188(Δ80.8)	1,490(Δ14.3)	1,677(Δ38.2)

*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병하는 방식의 투자이고, Greenfield형 투자란 사업장 혹은 공장을 새로 설립하면서 진출하는 방식의 투자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2.8% 증가한 661백만불을 기록하였으나, 미국 및 EU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21.0% 감소한 358백만불, 65.2% 감소한 535백만불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전기·전자, 화학 등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913백만불 기록했고,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금융·보험업 투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1% 감소한 757백만불 기록했다.

전기 전자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하여 913백만불,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61.1% 감소하여 757백만불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 섬유, 식품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각각 77.3%, 677.5%, 123.0%), 기계·장비, 화학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각각 Δ55.4%, Δ31.0%)했다. 부품소재업에 대한 투자는 832백만불로서 제조업 중 91.1%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유통), 통신,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각각 344.3%, 64.1%, 2.4%)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음식·숙박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각각 Δ85.3%, Δ48.1%, Δ87.1%)했다. 기타 산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7.9% 감소한 7백만불을 기록했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소폭 감소

형태별에서, Greenfield형 투자는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에서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임대, 물류업 등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1,490백만불을 기록하고, M&A형 투자의 경우 금융·보험업, 전기·전자업 등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80.8%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제조업에서 대형투자가 유입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9.3% → 39.4%)한 반면, 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급감하면서(656백만불 → 25백만불) EU의 투자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56.7% → 31.9%)했다. Sonix Japan(태양광모듈 제조업)은 국내 공장 설립을 위해 5.5억불 투자 신고했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2.8%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21.0%, 65.2%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2.8% 증가한 661백만불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39.4%) 또한 전년 동기(9.3%)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부품소재 분야 등을 중심으로 245.4% 증가한 625백만불 기록했다.

미국의 제조업 투자는 증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하여 358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투자금액 비중은 전체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77백만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5.3%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32.3% 감소한 281백만불을 기록했다.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불, %)

구분	'08.1/4	'09.1/4	증감률
미국(비중)	453(16.7)	358(21.3)	Δ21.0
일본(비중)	252(9.3)	661(39.4)	162.8
EU(비중)	1,539(56.7)	535(31.9)	Δ65.2
영국(비중)	656(24.2)	25(1.5)	Δ96.2
독일(비중)	203(7.5)	267(15.9)	31.5
네덜란드(비중)	107(3.9)	123(7.3)	15.0

EU로부터의 투자는 금년에 급감하여 전년 동기 대비 65.2% 감소한 535백만불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보험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급감(656백만불 → 25백만불)했다.

규모별로는, 1억불 이상 대형 투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87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1억불 미만 투자는 56.0% 감소한 803백만불을 기록했다.

1억불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은 전체의 52.1%를 차

지하였고, 1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중형 투자의 비중은 28.5%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형 투자가 269백만불(비중 28.4%)을 기록하였고,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550백만불(비중 60.2%)을 기록했다.

1억불 이상 대형 투자의 비중이 절반 넘어

서비스업의 경우 1억불 이상 대형 투자가 324백만불(비중 42.8%), 중형 투자가 245백만불(비중 29.1%)을 기록했고, 투자 형태별로는 M&A형 투자의 경우 중형 투자가 124백만불로서 가장 많은 비중(66.0%)을 차지했다. Greenfield형 투자의 경우 대형 투자가 874백만불로 가장 많은 비중(58.7%)을 차지했다.

시점별로는, 증액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0% 감소한 937백만불, 신규투자는 46.1% 감소한 496백만불을 기록했다. 증액투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75.9% 증가하였고(507백만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67.6% 감소한 424백만불을 기록했다.

일본의 증액투자는 대폭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증액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122.5%)한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각각 Δ19.8%, Δ94.8%, Δ53.5%)했다. 신규투자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고(402백만불),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82.5% 감소한 93백만불을 기록했다.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의 신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각각 84.4%, 677.7%), 영국, 독일 등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각각 Δ99.8%, Δ99.0%)했다. 장기차관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한 245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투자의 14.6%를 차지했다.

〈규모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7					2008					2009	
	1Q	2Q	3Q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1Q	증감률
1억불 이상	- (-)	251 (14.2)	1,419 (48.1)	2,552 (60.8)	4,222 (40.2)	892 (32.9)	559 (30.5)	1,316 (45.8)	2,472 (57.7)	5,239 (44.8)	874 (52.1)	Δ2.0
1억불 미만	1,599 (100)	1,518 (85.8)	1,532 (51.9)	1,643 (39.2)	6,293 (59.8)	1,823 (67.1)	1,273 (69.5)	1,557 (54.2)	1,811 (42.3)	6,466 (55.2)	803 (47.9)	Δ56.0
1천만불~ 1억불	1,120 (70.1)	1,085 (61.3)	1,040 (35.2)	1,098 (26.2)	4,343 (41.3)	1,343 (49.5)	801 (43.7)	1,155 (40.2)	1,281 (29.9)	4,580 (39.1)	479 (28.5)	Δ64.4
1백만불~ 1천만불	381 (23.8)	333 (18.8)	393 (13.3)	436 (10.4)	1,543 (14.7)	387 (14.3)	360 (19.7)	298 (10.4)	445 (10.4)	1,491 (12.7)	248 (14.8)	Δ36.0
1백만불 미만	98 (6.1)	100 (5.7)	99 (3.4)	110 (2.6)	407 (3.9)	93 (3.4)	112 (6.1)	104 (3.6)	85 (2.0)	395 (3.4)	77 (4.6)	Δ17.7
전 체	1,599	1,769	2,951	4,195	10,514	2,715	1,832	2,873	4,283	11,705	1,677	Δ38.2

* ()내는 비중

1/4분기 실적 분석 및 평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FDI 위축에도 국내 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지난해에 비해 투자금액은 감소했으나 제조업 투자는 26.0% 증가하였고, Greenfield형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64.0% → 88.8%) 투자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내 실적은 비교적 양호

글로벌 추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 FDI 실적이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FDI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09.1)는 '09년 전 세계 FDI 21% 이상 감소 전망했고, 세계은행(World Bank, 09.1)은 신흥국의 FDI가 3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선진국, 개도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FDI 실적은 유수 국제기관의 전망치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실적, 전년 대비) 싱가포르 Δ57.2%, 영국 Δ51.1%, 이탈리아 Δ94.3%,

('09년 1-2월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 Δ67.9%, 브라질 Δ31.8%, 중국 Δ26.2% 등이다.

업종별 추세 측면에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FDI 실적은 '08년 실적을 상회(13.5억불 → 14.8억불)하여 고용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08년의 경우, 자통법 시행('09.2)에 따른 제도적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의 FDI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금융·보험업 FDI 실적은 ('07.1/4) 2.2억불 → ('08.1/4) 13.7억불 → ('09.1/4) 2.0억불이다.

환율안정세 시현으로 투자 본격화

환율안정 효과 측면에서 최근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환율 안정세 시현으로 3월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4분기 월별 실적 추이는 (1월) 2.2억불 (2월) 2.3억불 (3월) 12.2억불이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국제 M&A 투자가 분산되고 있어 환율 안정화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M&A형 투자 추이는 (07.1/4) 5.0억불 → (08.1/4) 9.8억불 → (09.1/4) 1.9억불 이다.

향후 전망은 유치액 전망에서 글로벌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하반기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엔고 등 투자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할 경우 금년도 목표달성(125억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4분기에 투자유치 예상액이 집중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자 현실화가 '09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총체적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 예정이다.

하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집중 경향

타겟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고위급 IR 개최, PM(Project Manager)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통해 對韓 투자분위기 조성 및 대형 프로젝트 조기유치를 촉진한다. 하노버 산업박람회 계기 IR(4월, 국무총리), 일본 IR(5월) 등이다.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부지 임대료 감면 확대, 한일 부품소재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한국진출을 활성화한다.

기진출 기업의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 증액투자가 50~60%에 이르는 점을 감안, 능동적 고충처리를 통해 기존 외투기업의 추가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홀닥터,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착('08년 353건 처리)한다.

외투 환경개선 및 유인체계 보완을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08년 5월)'의 개선과제

를 지속 추진하면서 고용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실시('09년 7월 시행 예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업종별 투자 실적〉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2007		2008		2009.1/4분기		1962~2009.1/4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11	3	16	1	2	1	265	426
제조업	684	2,692	601	3,002	135	913	14,155	60,388
식 품	16	8	23	105	5	47	725	4,330
섬유·직물·의류	16	6	19	86	6	50	711	1,267
제지·목재	9	17	8	12			264	2,689
화 공	70	509	74	572	16	51	2,071	10,983
의 약	24	40	7	40	2	0.07	310	1,088
비금속광물	24	49	24	270	2	5	528	2,893
금속	70	237	50	184	8	4	924	3,045
기계·장비	91	309	95	248	22	31	1,933	5,366
전기·전자	205	935	180	1,051	47	681	4,190	20,592
운송용기계	126	565	89	346	20	16	1,362	7,066
기타제조	33	18	32	88	7	28	1,137	1,068
서비스업	2,802	7,612	3,067	8,387	639	757	29,084	83,444
도·소매(유통)	1,753	1,827	2,003	938	438	303	18,648	19,577
음식·숙박	145	422	179	37	49	3	1,379	7,239
운수·창고(물류)	105	564	124	704	14	5	1,030	3,960
통 신	22	37	9	25	2	0.4	262	2,143
금융·보험	151	2,293	177	4,608	20	201	1,901	28,682
부동산·임대	122	977	125	689	35	105	840	6,214
비즈니스서비스업	372	1,107	328	1,142	70	135	3,893	7,369
문화·오락	80	366	51	151	5	1	516	7,377
공공·기타서비스	52	19	71	93	6	4	615	884
전기·가스·수도·건설	62	207	60	316	12	6	711	6,432
전기·가스·수도	14	146	21	148	3	0.4	122	3,343
건 설	48	61	39	168	6	2	385	2,783
전 체	3,559	10,514	3,744	11,705	788	1,677	44,215	150,691